

2027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성명	
전형	
수험번호	



2027학년도 인문계열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모든 생물은 그저 공간을 차지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며, 먹이를 먹고 생활을 유지하면서 더 큰 변화를 만든다. 그런데 ‘생태계 공학자’라고 불리는 몇몇 생물종은 환경에 더 큰 변화를 일으킨다. 댐을 짓는 비버나 흙을 파는 지렁이와 같은 종은 자신과 주변의 여러 생물종이 살아가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런 환경 변화가 그들의 생존력과 번식력을 크게 높이거나 낮출 때, 이것을 ‘생태적 유산’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생태적 유산은 ‘지위 구축’이라고 불리는 진화적 과정의 일부이며, 유기체는 생태적 지위 구축을 통해 자신들이 살아갈 환경조건 자체를 재생산하게 된다.

브루스 스미스가 2007년 <사이언스>에서 지적했듯이, 인간은 궁극의 생태계 공학자다. 생태적 지위를 구축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기에 인류는 다른 생물과 달리 자연환경의 제약에서 벗어나 성장하고 번창할 수 있었다.

- 엘 C. 엘리스, 『인류세』

(나)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지구에 상처를 냈지만, 지구는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무위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인류는 지구에 가한 흔적을 모든 곳에 남긴다. 우리 주변만이 아니라 깊은 바다의 퇴적물에도, 심지어 인공위성 궤도에도 인간의 흔적이 있다. 그리고 대기 안에는 온실가스와 오염먼지를 채운다. 이는 인류의 삶을 안정과 지속에서 혼란과 변화로 바꾼다. 억겁의 세월 동안 태양에너지를 축적한 석유와 석탄, 즉 화석 연료를 태우면 에너지가 다시 나온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 이전 사회 경제의 발전을 저해했던 수많은 제약을 없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인류가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이른바 ‘거대한 가속’이 일어났다.

공기 중 질소를 비료로 전환하는 산업 공정을 개발해 식량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보건 환경을 개선했고, 이는 의학 진보와 함께 전염병을 막아냈다. 이로써 홀로세 이전 수백만 명뿐이던 인류의 인구가 현재 75억 명에 이르는 놀라운 여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거대한 가속은 지구환경의 파괴와 궤를 같이한다. 기후변화와 지구환경 파괴는 우리에게 전례 없는 이득을 안겨주었던 동전의 또 다른 면이다. 인류가 지금처럼, 또는 지금보다 잘 살아가려면 부득이 치러야 할 비용이다. 이 비용 때문에 1만 2,000년 전부터 지속해온 홀로세가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인류는 생태계에서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만 이제는 그 구석이 너무 커져 전체를 왜곡하고 있다. 인간 활동은 태양에너지 변화, 화산 분출, 빙하 주기와 지각판 운동보다 더 큰 크기와 속도로 지구에 영향을 준다. 지구시스템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력이 자연의 힘을 능가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

인간이 지구의 거의 모든 장소에 남긴 지질학적 증표는 인간이 지구에 미친 영향을 증언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캄브리아기 지층에서 생명의 대폭발, 쥐라기 지층에서 공룡 화석, 홀로세 지층에서 빙하의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지금으로부터 수백만 년 뒤 켜켜이 쌓인 지층 가운데 한 층에 오늘날 인간의 지문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 층에는 생물 다양성 감소, 바다 산성화,



2027학년도 인문계열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파괴된 숲, 빙하 감소와 가라앉은 섬의 흔적이 담겨 있을 것이고,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캔이 박혀 있을 것이다.

얼마 전까지 ‘큰 행성’에서 인류가 이룬 ‘작은 세상’은 별 탈 없이 유지되었다. 지구가 아주 커서 우리가 지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우호적인 지구에서 자신을 밀어내고 있다. 우리는 ‘큰 행성의 작은 세계’에서 ‘작은 행성의 큰 세계’로 들어섰다. 아직 지구가 ‘별문제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별문제 없어’ 보이는 이유는 지구가 인간이 가하는 압박을 완충하고 완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구가 복원력이 높을 때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른바 음의 되먹임이 작용한다. 불만스럽게 떼쓰는 아이에게 끈기 있게 대응하는 어머니처럼, 지구는 인류가 가하는 스트레스와 폐해를 흡수한다. 그러나 지구가 견딜 수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다. 지구도 지속적이고 강력해지는 충격으로 속은 멍들고 있다.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물질 성장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자연이 인간에게 한량없이 베풀어주지는 않는다.

지구의 주인이라 생각했던 우리는 군주가 잠을 자는 동안에 왕좌를 빼앗은 머슴에 불과하다. 인간이 지구를 다스리는 게 아니다. 생물권은 인류보다 심한 격변을 견뎌왔으며, 멸종 위기에서도 수백만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번성했다. 다섯 번의 대멸종조차 새로운 생물권의 탄생을 위한 기회로 만들었다. 우리가 지금 일으키는 지구 위기와 기후변화 속에서도 생물권은 새로운 판을 벌일 것이다. 지구는 스스로 자신을 돌본다. 자연은 우리 없이 살아남을 수 있지만, 우리는 자연 없이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야 한다.**

- 조천호, 『파란 하늘 빨간 지구』

(다)

사람들은 왜 매튜를 싫어했을까? 매튜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교수 시절의 매튜는 항상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책을 들여다보고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학교에 계속 남지 못하게 된 것은 그의 불성실이 이유는 아니었다. 탈락의 명분은 그의 연구가 창조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연구 계획서에서 독창성의 결여를 알아챘다. 그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었고 매튜의 계획서에서 구태의연함과 고루함밖에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생각건대 그의 경박함과 오만함에 교수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더 큰 이유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연구 계획서가 더 나을 것도 없었으니까. 그는 말을 너무 쉽게 했고 권위와 학식을 야유했다. 이 점에 있어 그는 경박하고 오만한 데가 있긴 했다.

매튜는 자신이 스스로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의 유물론자는 아니었다. 그는 그냥 물질주의자였다. 그가 유물론자였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이유로 그를 싫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물론자들은, 만약 그들이 진정한 유물론자라면 고상하고 지적이고 솔직한 사람들이다. 이념과 존재의 근원을 물질에 두는 데에 있어서 그들의 세계관은 물질주의자들의 세계관과 같다. 차이는, 유물론자들은 스스로의 물질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문화 구조물의 물질적 근거를 통찰하는 데 반해 물질주의자들은 물질 그 자체에 머무르기 위해 모든 삶을 물질로 환원시켜 버린다는 데 있다.

다윈은 인간의 기원을 태초의 단세포에 놓고 프로이트는 의식의 기원을 무의식에 놓는다. 마찬가지로 유물론자들은 문화와 문명의 기원을 물질에 놓는다. 그러나 다윈이 인간의 생물적 한계에 머무르기 위해 《종의 기원》을 저술하지는 않았고, 프로이트 역시도 무의식과 성적 욕구에 의해 인간을 한정시키기 위해 《꿈의 해석》을 저술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기원이 이와 같기 때문에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한계가 없다는 기만보다는 그 한계에 대한 정직하고



2027학년도 인문계열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날카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유물론자들의 이념과 의미는 아마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들의 고투와 통찰은 안타까울 정도로 솔직한 자기 고백이며 자기 폭로이다.

가장 큰 오류는 언제나 자신은 무오류라는 오만에서 나온다. 오류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스스로가 오류를 저지르기 쉬운 어리석고 취약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진실과 개선은 겸허로부터 시작된다. 인간의 존엄성은 스스로가 신의 자부심 넘치는 피조물이라는 인식에서보다는 끊임 없이 그 동물적 한계를 벗어나려는 자기 인식적 시도에 있다. 지금 현재 시도하고 있다는 것만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근거이다. 그것도 매우 한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우리는 언제라도 작별을 고하고 떠난 기원에 다시 매몰될 수가 있다. 분투 끝에 간척한 대지가 언제라도 밀려온 바닷물에 침식될 수 있듯이, 바닷물과의 끊임없는 투쟁만이 바다의 심연으로부터 우리의 대지를 지켜준다.

대지와 바다의 경계가 겸허의 출발점이다. 가까스로 바닷물을 밀어내고 있지만 우리의 기원은 바닷물에 덮여 있었던 것이라는 인식, 태만과 부주의는 언제라도 다시 영토를 잃게 만든다는 인식, 그러한 자기 인식이 우리 겸허의 기원이다. 자기는 본래 대지의 자식이었다는 인식이 오만이다. 이 오만의 대가로 그는 다시 바닷물에 잠기게 된다. 스스로는 자신의 몸이 이미 젖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안다 해도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매튜는 오만한 사람은 아니었다. 매튜는 인간의 고상함과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이 품위 있는 사람이라거나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의 야유는 고상한 척하는 인간의 허위의식에 집중되었다. 그의 냉소적인 눈은 “너희는 그래 봤자 동물에 지나지 않지. 굶고는 못 사는 짐승이야”라고 말하고 있었다. 알리사나 가브리엘라나 사뮤엘은 특히 매튜의 먹이었다. 이 사람들이 허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매튜가 매우 가혹했다는 것이다.

- 조지수, 『나스타샤』

(라)

코스모스의 발견은 바로 ‘어제’ 일어난 사건이다. 지난 100만 년 동안 우리는 지구 이외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해 왔다. 그것에 비교한다면 아리스타르코스*에서 현대까지의 기간은 0.1 퍼센트에 불과한 찰나일 뿐이다. 오늘에 와서야 우리는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우리의 존재가 우주의 목적일 수도 없다는 현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제야 우리는 스스로를 1조 개의 별들을 각각 거느린 1조 개의 은하들이 여기저기 점점이 떠 있는 저 광막한 우주의 바다에 부질없이 떠다니는 초라한 존재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인류는 겁도 없이 우주라는 바다의 물 맛을 보았고 그것이 자신의 기호에 딱 들어맞는다는 사실도 알아차렸다. 인간의 본성이 우주라는 큰 바다와 공명을 이루며 인류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한 뜨거운 그 무엇이 우주를 자신의 편안한 집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사람이 별의 재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일까? 인류의 기원과 진화가 우주에서 진행된 모든 사건들과 밀접하게 묶여 있기 때문은 아닐까? 우주 탐험이야말로 인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위대한 장정인 것이다.

신화를 만들어낸 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듯이 사람은 대지의 자녀인 동시에 하늘의 자녀이기도 하다. 지구에서 살아오는 동안 인류는 못된 진화적 습성을 많이 길러 왔다. 호전성, 그릇된 관습, 지도자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 이방인에 대한 이유 없는 적개심같이 오랫동안 유전돼 온 못된 요소들은 인류의 생존 자체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측은히 여길 줄 아는 좋은 천성도 갖고 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식의 자식도 아낀다. 역사에서 무언가를 배우



2027학년도 인문계열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려 노력하고 지적인 것을 향한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은 인류에게 영원한 생존과 번성을 확실히 약속할 도구요 방편이 될 것이다. 못된 습성과 좋은 천성 중에서 어느 쪽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특히 미래를 보는 우리의 눈이 지구에 고착돼 있다거나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마음이 지구의 어느 한 지역에만 묶여 있다면 결국 저 못된 습성이 사랑의 마음과 이성의 예지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광막한 코스모스의 바다 속에 감춰진 새로운 세상과 가능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외계 문명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와 같은 문명의 운명은 결국 화해할 줄 모르는 증오심 때문에 자기 파괴의 몰락으로 치달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 하지만 우주에서 내려다본 지구에는 국경선이 없다. 우주에서 본 지구는 쪼면 부서질 것만 같은 창백한 푸른 점일 뿐이다. 지구는 극단적 형태의 민족 우월주의, 우스꽝스러운 종교적 광신, 맹목적이고 유치한 국가주의 등이 발붙일 곳이 결코 아니다. 별들의 요새와 보루에서 내려다본 지구는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작디작은 푸른 반점일 뿐이다.

- 칼 세이건, 『코스모스』

*아리스타르코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함.

[문제 1-1]

(가)의 ‘생태계 공학자’의 개념을 설명하고,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생태계 공학자’로서 인류가 자신과 지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1-2]

(나)의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태도에 대해 (다)와 (라)에 담긴 인간에 대한 통찰을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2027학년도 인문계열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자산을 관리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이 있다. 안전성은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의 정도를, 수익성은 가격 상승이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유동성은 보유 자산을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금융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상품은 안전성이 낮아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크고, 안전성이 높은 상품은 수익성이 낮다. 따라서 합리적인 자산 관리자라면 어느 한쪽만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소득과 투자 목적·시기 등을 고려하여 여러 원칙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나)

대표적인 금융 상품은 각기 다른 성격을 지닌다. 예금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매우 낮아 안전성이 높고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지만, 정해진 이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주식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로, 배당과 시세 차익을 통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주가 하락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크다. 채권은 정부나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 발행하며 이자 수익과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주식보다 안전성이 높다. 한편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며, 연금은 노후의 소득 감소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상품이다.

(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다. 한 종목에 모든 자금을 투자했다가 그 회사가 부도나면 큰 손실을 입지만,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면 한 종목이 하락해도 다른 종목에서 손실을 보충할 수 있다. 이처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산을 여러 금융 상품에 적절히 배분하는 것을 분산 투자라 하고, 그렇게 구성한 자산의 집합을 포트폴리오라 한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자산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일부를 예금으로 보유하여 안전성과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라)

사람은 일생 동안 소비 활동을 하지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기는 한정되어 있다. 생애 주기의 각 단계에는 달성해야 할 과업이 있어 경제생활의 모습도 달라진다. 청년기에는 취업·결혼·주택 마련 등의 과업이, 중·장년기에는 자녀 양육과 교육, 은퇴 및 노후 준비라는 과업이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중·장년기는 소득이 가장 많지만 지출 규모도 큰 시기이다. 생애 주기별 수입 곡선과 지출 곡선을 그려 보면, 소득이 지출을 초과하는 ‘생애 흑자’ 시기에 충분히 저축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미리 재무 목표를 세우고 금융 생활을 설계하는 일이 중요하다.



2027학년도 인문계열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마)

재무 설계에서는 자산을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어떤 비율로 배분할지가 중요하다. 여기서 위험 자산은 주식처럼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자산을, 안전자산은 예금처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작은 자산을 가리킨다. 흔히 ‘100-나이의 원칙’이 언급되는데, 투자 자금 중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숫자’만큼의 비율을 위험자산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예컨대 20세는 80%, 70세는 30%를 위험자산에 둔다. 다만 이 원칙은 하나의 출발점일 뿐이며, 실제 배분에서는 나이만이 아니라 목표한 지출 시점까지 남은 기간도 함께 따져야 한다. 손실을 회복할 시간이 넉넉하면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짧을수록 원금을 지키는 안전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

(바)

인터넷 게시판에 두 사람의 고민이 올라왔다.

고민남: 저는 30세,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2년 된 직장인입니다. 월 소득은 300만 원,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포함한 월 지출은 200만 원 정도이고, 그동안 모은 여유 자금 2,000만 원과 저금리로 장기 분할 상환 중인 학자금 대출 1,000만 원이 있습니다. 3년 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신혼집 보증금은 양가에서 도와주시기로 했고 제가 마련해야 할 결혼 자금은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고민녀: 저는 45세, 창업 10년 차 자영업자입니다. 월 소득은 700만 원, 월 지출은 400만 원 정도이고, 5,000만 원가량의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자영업이다 보니 소득이 불규칙하고 일반 기업처럼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문제 2-1]

제시문 (가)·(라)·(마)를 활용하여, (바)의 고민남과 고민녀에게 (가)의 세 원칙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을 각각 하나씩 밝히고, 두 사람에게 그러한 원칙이 필요한 이유를 생애 주기상의 나이만이 아니라 재무 목표의 시기까지 함께 고려하여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50)자로 할 것. (20점)

[문제 2-2]

제시문 (가)·(나)·(다)·(마)를 활용하여, (바)의 두 사람 중 한 명을 선택하시오. 그 사람에게 안전 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100-나이의 원칙’을 출발점으로 삼아 제시하고, 그 비율에 맞추어 예금·주식·채권 등 금융 상품 세 종류 이상을 어떻게 배분할지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안하시오. 아울러 그 구성이 왜 그 사람에게 적합한지 분산 투자와 생애 주기에 근거하여 논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500(±50)자로 할 것. (30점)